

현대의 바람직한 종교인상 봉사하는 성직자

‘전환시대...’ 세미나서 김중서교수등 제시

전환시대를 맞은 한국의 바람직한 성직자상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지난 18일 불교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성직자와 관련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환시대의 성직자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김중서교수(종교학)는 “현대 고전적인 지배권위의 시대가 끝나고 실용적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라며 “신자들 위에 군림하는 성직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성직자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신대 유성민교수(종교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가 사회함에 따라 성직자가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

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종교는 성직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영산대 하정남교수는 종교교육기관의 학적 상호인정 제도를 예로 들면서 “종교간의 정보교환이나 교과간의 자료공개 등을 통해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원주의 종교사회에서 건전한 종교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민교수가 제출한 ‘성직자로서의 종교별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의 연간 행차교역원 입학자는 4~5백명에 불과하고 전체불교계의 성직자원칙자는 1~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시대 宗憲 친일주지 반대로 빛 못봐

김광식씨 '1930년대 불교계 동향분석'서 주장



김광식씨

일제하의 불교계는 1929년 1월 ‘조선불교전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를 통해 불교계 일체의 조직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종헌(宗憲)을 완성했다.

당시 불교계의 발전 및 통일 운동 등 정신사 측면에서 기념비적 의의를 갖는 종헌의 실행과 관련된 제문제 살펴봄으로써 한국불교의 제2차 학술발표회서 ‘1930년대 불교계의 종헌 실행 문제’란 발표논문들을 통해 1930년대 전반기의 종헌 실행의 전후 사정 및 그 부진 의 문제와 함께 종헌 실행을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대책을 분석했다.

김씨는 “불교계는 승려대회

의 산물로 성립한 종헌의 실행을 통해 불교계 내외의 모순과 위태로운 요소를 극복하면서 불교계의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종헌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종헌 실행의 부진은 사찰령으로 대변되는 식민지 현실과 당시 불교계의 자각 부족, 종헌에서 규정된 기관의 조직내용상의 문제 등이었다”면서 “종헌 실행을 저해한 주대상은 사찰령을 토대로 한 본말사 체제하의 관권(官權)에 기생했던 주지들이었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김씨는 친일주지들의 비협조는 원인은 △통일기관이 성립되면 본산주지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과 △통일기관에서 인사권을 갖게 되면 친일·관비적인 대인들이 제거된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이후 불교계에서 나온 타계책은 ‘사법(寺法) 개정운동’과 ‘종헌 반포기념일’ 제정 등이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법개정운동은 종헌에서 규정된 통일기관의 위상과 그 기관에서 각 사찰을 통솔할 권한을 각 사찰의 사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으며, 기념일 반포는 종헌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고 종헌을 절대 지지하는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결국 당시 불교계는 종헌을 실행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일제 및 그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의 반대와 비협조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법주사

금강문
擁護聖衆滿虛空
(옹호성중만허공)
都在毫光一道中
(도재호광일도중)
信受佛語當擁護
(신수불어당옹호)
奉行經典水流通
(봉행경전영유통)



한국 사찰의 주련

옹호성중이 온 천지에 가득하니
모든 길 속에 부처님의 호광이 있도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옹호하고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 흥만케하라

권영한
것이다.
그러나 옹호신장의 위신력만을 추켜세운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중생에게 도움으로 불국토를 지키는 보다 큰 의미의 옹호성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은 천지에 가득한 옹호신장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눈에는

불국토 지키는 옹호신장 찬탄

해설 법주사는 조계종 제5교구본사다.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의 속리산 종광속에 자리한 이 도량은 신라 제24대 진흥왕 14년에 의신(義信)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고찰들이 그렇듯이 법주사도 절로 드는 길에서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야 한다. 이 문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얘기했다. 법주사의 금강문에도 금강역사가 모셔져 있다. 때문에 이 주련의 내용도 중생과 가람을 수호하는 옹호신장의 위엄을 찬탄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신장의 보살핌이 이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과 그 보살핌을 의심없이 믿는 중생의 세상이 전해될 때 이미 이 세상은 중생의 세계가 아닌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뒷 3행에서 모든 길 속에 부처님의 호광(백호광·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서 나는 빛, 부처님의 위신력을 상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믿음의 굳건함을 뒤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은 영산적법 가사의 일부분이다.
(인동 경안중 교사)

한·일교류 문화이해 우선돼야

동국대·대정대·불교대 공동포럼 '문화교류 역사와 전망'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한 포럼이 동국대의 일본 불교대 대정대 주최로 지난 18일 일본 교토국 제이코회관에서 열렸다.
동국대 송석구총장과 일본 측 대학의 이사장 학장등 학교관계자와 학자들이 함께한 이날 포럼은 양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의 문화를 이해 인정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동국대박물관장 송석구교수는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강연을 통해 양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고 전제하고 “양국의 문화적 특성의 융합이 두 나라의 외교와 문화교류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국측에서는 한림대 최영희교수와 단국대 황재강 명예교수가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

“노자의 道 인도 다르마와 유사”

중국 무백혜교수 주장



무백혜교수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노자의 道(道)는 산스크리트의 다르마(dharma, 法)와 매우 유사하다.”
지난 18일 타이호텔에서 열린 인도철학회(회장 이기영) 초청 학술강연회에서 ‘인도철학과 불교’를 주제로 강연한 무백혜(巫白慧) 중국사화학과 원교수는 “노자의 도가 정신적 초월성의 가장 높은 상태, 모든 사물의 본체라는 의미에서 불교의 진여(眞如) 여래장(如來藏) 보리 열반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인도의 현자들이 ‘도’라고 하는 자연법(自然法)과 다르마의 법칙 등을 관찰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동일한 반증법적 방법을 채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A.D. 200년경 인도의 옹수보살은 불교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배타의 반증법을 계승, 4구(四)의 반증법이라는 창

남편이 생선을 너무 좋아합니다

문 제 남편은 생선을 워낙 좋아해서 매 끼니마다 찾습니다. 어쩌다 생선요리가 빠지면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도 불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양해자·경남 김해시 삼방동)

답 그것 또한 살생이다 싶어 꺼리시는 모양이군요. 언젠가 본란을 통해서 육식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도 공기중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아재로 상을 차린들 그것은 살생이 아니가요. 모든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이치가 그러하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나 한 몸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그 생명체들도 가까이 응해줄 것입니다.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천도가 되니 말입니다.
남편이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즐겨서 걱

마음이든 다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우리가 흔히 원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 몸으로 다그치면 하는 척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게 할려면 마음이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끝 간데 없이 통하니가 걱정부터 앞세우지 말고 단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돌려 놓도록 해보세요.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도 하겠지만 말로 몸으로 해서 안되는 일인줄 익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지 않으니가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보세요.
부도 자식 사이처럼 잘 통하는 경우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벨이 울리면 조만간 통화가 가능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자유인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문 부처님한테 착을 두면 부처에 빠지고 열반에 착을 두면 열반에 빠진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실대로를 바라게 되는데 이게 다 언어놀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인의 경계는 어떤 것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선원 대흥사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해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정이라는 억지로 못먹게 하려하지 말고 그대로 응해주시면 마음으로 가만히 한생각 내어 보세요. ‘당신 몸이 건강하려면 균형있는 식사를 해야할 터이니 채소를 마다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3 아들이 놀러만 다녀 속상해요

문 고3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제 아이는 도무지 열심히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놀러다니면서 엉뚱한데 관심을 쏟는 것 같이 여간 속이 상하는게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지주 야단을 친곤 합니다. 마이동풍입니다. 기르침 부탁드립니다.
(이효경·대전 동구 용문동)

답 아들을 쳐가며 육신을 다잡으려 해서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겠지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좇아다니며 애 공부하는 안하고 TV만 보느라, 네가 지금 그 고3 있을 때, 남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하며 잔소리를 해대지만 그렇게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얘길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음놀음인데 말로 잡고 몸으로 잡으려 해서야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어머니의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든, 공부를 안하고 보는 앞에서 놀기만하든 그 모양에 이끌려서 짜증부터 내질 말고 마음을

인지요.
(정한성·서울 성북구 삼선동)

스스로 실천해 보아야 알고 맛을 보아야 알듯이 대에서 겪어 보아야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애를 낳기는 했는데 세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기르주고 해아하는데 그렇듯이 성품을 볼 때까지 수업을 해야합니다. 정신이 어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견성했다 해서 다는 아닙니다. 또다시 열마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지요. 일체를 놓고 들어가 견성했는지 또 계속 놓고가야 합니다. 그래서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 비로소 성인(成人)이 되는데 돌아온 도리를 확연히 꿰뚫었을 때 나름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돼지가 원하는 돼지가 되어주고 뱀이 원하면 뱀이 되어주고, 그래야만 보살로서 걸림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쯤은 되어야 광대 무변한 법을 가르 세로 먹여주고 하지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자유자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자재가 아닌 깨달이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았다 느니 보았느니 듣겠다느니 듣느니 해서는 안 됩니다. 책을 보고 통했다해도 물결 속의 물 한 방울도 스스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필요없고 이론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어른이 되어야 하고 생사조차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생사가 끄달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사조차 없다는 경지가 되어야지요. 커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바로 부처님법의 공부입니다.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 등
역임했던 고僧인 박사의 역적!!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은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은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범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성도절 범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범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범회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황궁에서 승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세척에 성취된 깨달음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존성을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 왕굴리달라 2) 용녀의 성불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범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정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보시 특가/1권당 1,000원
크기/신국판(152mm×223mm) 64페이지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정경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범보시가격/4,000원
●부록/용어해설, 지정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범보시자, 범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62